

##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

홍 목 주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은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수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엄혹한 자연과의 격전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새 세대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8페이지)

우리 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당의 전도와 직결되어있는 청년문제해결의 근본으로 틀어쥐고 청년교양에 큰 힘을 넣어오면서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실천투쟁속에서 역세게 키웠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로 준비시켰다.

청년동맹은 사상교양단체이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청년동맹의 기본임무이다. 청년동맹조직들이 자기의 본신임무인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하면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없으며 청년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청년동맹이 무기력한 조직으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첫 진군길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청년들의 심장속에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청년동맹에서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어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의 넋과 기상이 나래치게 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청년동맹조직들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기본임무로 틀어쥐고 꾸준히 박력있게 해나감으로써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준비시켜나가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시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제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갔다.

전 동맹적으로 5대교양에 화력이 집중되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광범히 조직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백두산에로의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통하여 청년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이 발휘한 충실성의 전통을 이어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으로 삶을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로 충만되게 되었다.

청년들의 심장의 피를 끓여주는 방송정론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발걸음》, 《조선청년행진곡》을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 진실하고 실효가 큰 교양방법들을 적극 활용한 교양사업도 공세적으로 벌어졌다.

우리 당은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사를 빛내어나가도록 하였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이룩한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조국의 강성번영도, 청년들의 보람찬 삶도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력사에 뚜렷이 새기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혁명의 년대와 더불어 창조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온 수령결사옹위의 전통, 영웅적투쟁전통은 우리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적극 벌렸다.

1950년대 용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위대한 시대정신이며 천만군민에게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주체조선의 넋이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을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진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우리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은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위용떨치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이 되었던것이다.

우리 당은 다음으로 청년들의 애국충정의 고귀한 피땀으로 청춘대기념비를 일떠세워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혁명정신을 창조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청년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되어있고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이 일떠서면 이 세상에 못해낼것이 없다는 혁명신조를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건설을 청년들에게 맡겨준것은 청년동맹이 우리 당의 구상을 무조건 관철하는 힘있는 전투조직이며 중요하게는 그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자는데 있었다고 하시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바라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청년들의 지향을 담아 돌격대의 명칭도 뜻깊게 부르도록 해주시고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이 맡겨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4(2015)년 4월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고 백두대지의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청년돌격대원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신 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둘까지 무조건 끝내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우리 당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시대의 상상봉에 올라선 청년건설자들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최대도로 분출시켜 조선청년운동력사에 가장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백두대지에 아로새겨가도록 하였다.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받아안은 백두청춘들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당이 안겨준 담력과 용맹으로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려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끼고 1호발전소언제를 완공한것은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를 자랑찬 로력적성으로 빛내이기 위해 총결기해나선 백두청춘들과 건설자들의 애국헌신이 낳은 충정의 열매이며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영웅청년신화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우는 과정에 청년들은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되어갔다.

이 나날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으면 한몫을 바쳐 수송로를 열어나간 돌격대원들은 차디찬 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얼음기둥》이 되어 레루를 떠받들었으며 청년들의 혁명성과 희생성, 애국심은 력사에 길이 전해지게 되었다.

주체104(2015)년 9월 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갈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모두를 영웅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발전소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었다.

그후 주체104(2015)년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준공식에 나오시여 우리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막아나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출발을 떼고 백두대지에 애국의 삼을 박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둥으로 서있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기념비와 위훈전시관을 세워 그 공적을 길이 전하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지에서 백두청춘들의 정신과 문화를 따라배우도록 하게 하려고 한다고 최상의 믿음과 은정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청년돌격대원들이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짝 조이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다음해 청년절까지 끝낼것을 명령하시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박달나무도 얼어터질 혹한속에서도 보온덮집들을 짓고 쿵크리트타입전투를 벌리었다. 이들은 우리 나라 수력발전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

리적조건을 극복하며 새로운 기술혁신안들과 합리적인 건설공법으로 결사관철의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그리하여 주체105(2016)년 3월말까지 언제쌓기공사를 완전히 결속하고 이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완공함으로써 겨울철에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할수 없다던 기존공식을 타파하고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4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훌륭히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찾으시여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다시금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1년동안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것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다시금 파시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제정신이 창조되었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었다고, 이것은 창당 첫 시기부터 장기성을 띠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키운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준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력과 규률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몇십, 몇백만kW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할수 없는 커다란 승리이며 10여년간에 걸치는 자연과의 간고한 대격전속에서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당을 결사옹위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영웅들, 청년핵심들이 수많은 배출되였다.

백두청춘들이 발휘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당중앙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이며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공격적인 혁명정신이다.

모든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답게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떨쳐나 청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우는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움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청춘대학